

읽기 전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읊조리게 되는 노래가 있는지 말해 보자.
다음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노래한 가사이다. 작가의 삶이나 당시의 시대 상황 등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해 보자.

속미인곡 續美人曲

정철

부록 322쪽에 <속미인곡>의 현대어 풀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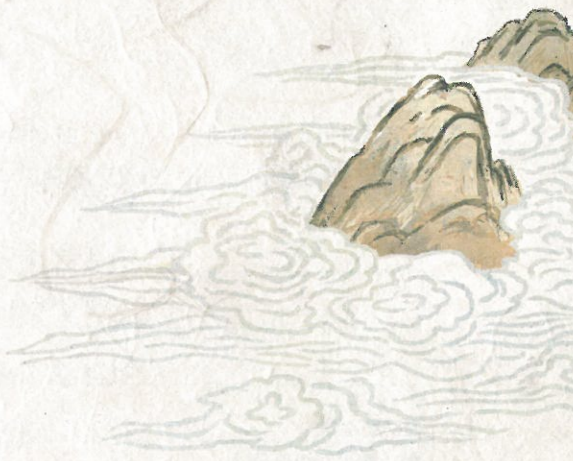
첫 번째 여인을 갇혀, 두 번째 여인을 올려라 하고, 두 여인의 대화를 구분하며 읽어 보자.

올녀가 '미친 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 백옥경 백옥경,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하늘의 서울.
- 괴암죽 사랑받을 적, 사랑 받을 만.
- 군쁘디 군뜻이, 딴 뜻이, 딴마음이.
- 이리야 아양이며, 응석이며.
- 춘한 고열 춘한 고열, 봄의 꽃샘추위와 여름의 괴로운 더위.
- 추일 동턴 추일 동턴, 가을 날과 겨울날.
- 죽조반 죽조반,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
- 조석 뉘 조석 뉘, 아침밥과 저녁밥.
- 세시논가 올리시논가, 잡숫게 하시논가.

시행 1
 1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阮上 상 白帛玉 옥 京京을 엇디 하야 離니別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5 내 얼굴 이 거동이 남 괴암죽 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터야 어즈러이 흐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10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믈허라
 설위 플터 헤니 造造物물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15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뉘기 튼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춘춘寒한 苦고熱열은 엇디 하야 디내시며
 秋추日일 冬동天阮은 뉘라셔 뉘섯논고
 粥죽早조飯반 朝조夕석 뉘 네와 곳티 세시논가
 20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消消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잠거니 밀거니 뉘픈 뉘히 올라가니
 25 구름은 ㄱ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山山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엇디 보며
 咫尺척을 모르거든 千천 里리를 바라보라
 출하리 ㄱ의 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
 브람이야 ㄱ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30 샴공은 어디 가고 뉘 비만 걸렸논고
 江강天阮의 혼자 서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消息식이 더욱 아득혼더이고
 茅모簷첨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반壁벽 靑靑燈등은 늘 위하야 불갓논고
 35 오르며 ㄱ리며 헤뜨며 바자니니
 저근뉘 力력盡진 하야 ㅈ음을 잠간 드니
 精精誠성이 지극하야 ㅈ의 님을 보니
 玉옥 ㄱ 튼 얼구리 半반이 나마 늘겨세라



올녀가 '뉘픈 뉘'와 'ㄱ'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

- 님다히 임의 쪽, 임 계신 곳.
- ㄱ니와 물론이거니와, 말 할 나위 없고.
- 모침 모침, 초가지붕의 처마.
- 반벽청등 반벽청등, 벽 가운데 걸린 청사로 장식한 등.
- 헤뜨며 헤매며.
- 바자니니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 거니.
- ㄱ진하야 역진하여, 힘이 다하여 지쳐.
- 반이 나마 반 남짓.



② '무음의 머근 말슴'의 내용은 무엇일까?

- 슬쿠장 실컷.
- 숲자 후니 아뢰자 하니.
- 바라나니 바로 나니. 쏘아 지니.
- 오던된 ① 오전이 된. ② 방정맞은. 경망스러운.
- 계성 닭의 울음소리.
- 식여디여 죽어져서.

무음의 머근 말슴 슬쿠장 숲자 후니²
 40 눈물이 바라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情정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오던된 鷄계聲의 좁은 엇디 씨뚫던고
 어와 虛허事스로드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브라보니
 45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송강가사》



정철 (鄭澈, 1536~1593)

조선 중기의 문신. 문인. 호는 송강(松江). 27세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좌의정에까지 이르렀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려 유배되기도 하는 등 많은 곡절을 겪었다. 조선 시대 가사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을 지었고, 연시조 <훈민가>를 비롯하여 80여 수의 시조를 남겼다. 저서에 <송강집>, <송강가사> 등이 있다.



1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두 여인을 갑녀와 을녀로 구분하여 두 사람이 말한 차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구분	대화 내용
갑녀	을녀에게 어디 가는 길인지 물어봄.
을녀	
갑녀	그리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함.
을녀	• 임이 잘 지내는지 걱정함.
갑녀	

2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달'과 '비'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1) 을녀가 "출하리 식여디여"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 차이를 생각해 보고, 갑녀가 을녀에게 '구준비'나 되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낙월:	}	• 구준비나 되라고 한 까닭:
• 구준비:		

도움말

을녀의 심정을 생각해 보고 위로, 충고, 질책, 공감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아 말할 수 있다.

(3) 자신이 만약 갑녀라면, 을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말을 해 줄지 말해 보자.



☞ 자료실

동인: 조선 시대에, 봉당 가운데 김효원과 유성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서인과 대립한 당파. 또는 그 당파에 속한 사람.

3 이 작품의 다양한 맥락과 관련하여 모둠원들과 함께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속미인곡>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와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정철은 1583년 48세 때 예조 판서가 되었으나 동인(東人)의 탄핵을 받아 1585년에 관직을 잃고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가사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

《선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583년 9월 11일에 사간원이 “정철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의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는다.”라며 그를 파직하여 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절의에 대하여는 초목(草木)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이다.”라고 말하며 정철을 두둔했다. 그러나 2년 후에 정철은 다시 탄핵을 받고 결국 파직당했다.

① <속미인곡>에 등장하는 '임'과 화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 뒷글에서 찾아보자.

임
화자

② 관직을 잃고 창평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상황이 <속미인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자.

③ <속미인곡>에서 작가가 자신을 탄핵한 '동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동인'을 빗댄 대상	작가의 태도

④ ①~③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속미인곡>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일지 말해 보자.



☞ 자료실

☞ 자료실

미인(美人): 한자어 미인은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지만, '임금 또는 현인(賢人)'을 뜻하기도 한다. 미인을 '임금'의 의미로 사용한 최초의 작품은 굴원의 시 <사미인(思美人)>이다.

☞ 자료실

<이소(離騷)>: 기원전 3세기 경 중국 초나라의 시인 굴원이 지은 장편 시. 굴원은 왕이 간신의 말만 믿고 자신을 먼 곳으로 유배 보내자 억울한 마음을 시로 읊었다.

(2) <속미인곡>과 다음의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가)

잠깐 동안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사무치니 편작이 열이 온들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았다가 향 물론 날개로 임의 옷으로 율기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좃으려 하노라.

▪ 편작(扁鵲) 중국 전국 시대의 전설적인 명의.

- 정철, <사미인곡>에서

(나)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왕(先王)의 발자취 따르려 했더니 임은 내 마음 아니 살피시고, 도리어 모함만 믿고 진노하시누나. 나는 직언(直言)이 해로울 줄 알면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고 맹세코 하늘은 알리라, 오직 임 때문임을.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판마음 가지실 줄이야.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임의 잦은 변덕 가슴 아파라.

- 굴원, <이소>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모두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야.

맞아. <속미인곡>의 화자는

그런데 <이소>의 화자는

굴원의 <이소>도 임금과 이별한 신하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네. 그런데 시 속 화자의 태도는 좀 다른 것 같아.

정철이 <사미인곡>을 짓고 이어서 <속미인곡>을 지었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두 작품 모두 임과 이별하여 슬퍼하는 여인이 등장해.